**중국의 창업 환경 분석**

<개요> 최근 ‘American dreams in China (中国合伙人)’이라는 영화로 중국내 창업 열기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창업 동기가 생존형에서 기회형으로 바뀌었고, 중국 지역별 창업활동의 절대적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중국 창업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창업 기회가 증가하는 등의 변화를 겪었다. 현재 중국 창업시장 현황은 비록 중국 청년들의 창업 의향은 높지만 정책적 지원, 산업환경, 금융체제, 시장환경 등의 창업 기반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창업 발전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 중국 창업자의 학력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창업 범위도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정부의 노력으로 창업인프라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중국은 금융시장 미숙, 벤처투자 부족, 세수 등 정책적 지원 부족 문제로 창업인프라가 비교적 뒤쳐진 편이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기 힘들고 벤처투자는 더더욱 어려워 중국의 많은 젊은 세대들이 창업의 꿈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 중국 창업환경의 변화와 특징

○ 차이나드림

– 최근 ‘American dreams in China (中国合伙人)’이라는 영화로 중국내 창업 열기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음

– 이 영화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창업 스토리를 소재로 한 영화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의 중국의 변화상과 함께 ‘아메리카드림’에서 ‘차이나드림’으로 변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음

– 이 영화는 중국 사영 교육업계의 대부인 신동방(新东方) 의 창업 스토리를 소재로 하여 5월 17일 첫 상영된 후 10일만에 3억 위안의 박스오피스를 기록하는 등 중국 국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음

– 이러한 창업 스토리 영화가 중국의 대표 대학인 칭화대학(清华大学)에서 첫 시사회를 가졌다는 점도 중국 청년들의 창업 열망을 북돋았음

– 중국 공상총국에 따르면 2013년 3월 말, 중국내 사영기업은 1096.67만개, 개인 상공업자 4062.92만 명, 농민 전문합작사 73.06만 호가 있는데,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1.01%, 0.09%, 6.04%로 매우 낮은 증가율을 나타냄

– 올해 1분기 중국에서 새로 등록된 기업 수는 39.91만 개로 전년동기보다 6.67% 감소해 중국 창업 열기가 꺾이고 있음을 보여줌

– 이는 무문별한 창업으로 성공률이 낮아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그 밖에 창업 인프라가 여전히 미흡한 점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

– 투융자 환경은 물론 창업의 법률 환경 역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 자기 자본이 없는 순수 창업자들에게 발전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임

– 이러한 문제는 경제가 비교적 낙후된 지역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중국 창업환경은 동부, 중부, 서부지역이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동부지역은 경제적 기반, 정책환경, 산업환경, 금융지원, 시장환경, 혁신의향, 인프라시설 등 모든 방면에서 중서부지역을 크게 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R&D 투자도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지역에 주로 집중되어 있음

– 최근 한 중국 기업이 중국 도시별 창업환경에 대해 평가한 <2013년 중국 창업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광저우(广州), 항저우(杭州), 난징(南京), 쑤저우(苏州), 우한(武汉), 시안(西安), 청두(成都), 우시(无锡) 등이 7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음

–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에는 중국 전역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력, 창의력을 지닌 인재가 집중되어 있고, 광저우, 쑤저우, 항저우 등지는 제조업과 전자상거래 인프라 방면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보임

○ 중국 창업환경의 특징

– 중국 창업자의 학력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창업 범위도 다양화되는 추세임

– 최근 중국의 창업은 기술 연구개발과 인터넷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 서비스업, 문화산업, 여행, 교육 등 방면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해외 유학경험과 근무 경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석사 학위 이상인 자가 1% 이상, 학사 학위 이상인 창업자는 20% 이상에 달함

– 중국 서남재정대학(西南财大) 중국 가계금융조사(CHFS)에 따르면 중국내 창업의 이윤 상황이 비교적 낙관적임. 도시에서 창업한 경우 보통 80% 이상은 이윤을 남기고, 3.6% 만이 적자를 본다고 함

–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임. 대도시는 경쟁이 비교적 치열하고, 경영원가도 높아 이윤 상황이 안 좋은 편임

– 45세 이상의 가정 공상업의 경우, 베이징, 상하이, 선전은 67.5%만이 이윤을 남기고, 15.8%가 적자를 본다고 함. 그에 비해 다른 지역에서 이윤을 남기는 기업의 비중은 거의 80%에 달함

– 일반적으로 공상업의 연평균 이윤은 15만 위안으로 비농업, 비창업 가정의 근로임금(연평균 7.2만위안)의 2배 이상임.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업 소득은 연간 1.2만 위안에 불과해 창업했을 경우 얻는 연간 이윤의 1/10수준에 불과함

– 도시와 농촌 간에도 이러한 격차가 존재하는데, 도시의 연평균 창업 이윤은 16.9만 위안으로 비농업 비공상업 가정 연소득의 2.3배에 달하고, 농업 소득의 15.4배에 달함

– 농촌지역의 창업 연간 이윤은 이보다 다소 적은 9.4만 위안으로 비농업 비공상업 가정의 연소득의 1.4배이며, 농업 소득의 7.8배에 달함

– 그러나 창업은 소득이 높은 만큼 더 많은 시간을 근로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5.5일인데 비해 창업자는 일주일에 6.4일을 일함

– CHFS 자료에 따르면 공상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평균 교육연한은 9.77년으로 비공상업 종사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대학 졸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고학력 창업자가 꾸준한 증가세에 있지만 그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임

– 대학 이상 교육수준의 청년 가정 중 22%가 공상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들의 연평균 수입은 46.8만 위안 정도로 경영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임. 그에 비해 비창업 대학 이상 학력자 가정의 연평균 수입은 10.2만 위안으로 창업한 경우 거의 4배가 넘는 수입을 얻음

– 30세 이하의 청년 창업 비중은 90년대 32.1%에서 2000년~2005년 37.4%, 2005년~2010년 4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창업 열기는 대량의 소기업을 배출함. 창업 기업 중 근로자 5인 이하의 영세 공상업이 중국 전체 공상업 중 86.8%를 차지하고, 근로자 5~50명 사이의 중소 규모 공상업 수는 11.4%, 근로자 50명 이상의 대기업은 불과 1.7%에 불과함

– 취업의 각도에서 봤을 때,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기업의 고용 규모는 4.6%, 중소기업의 고용 규모는 20.6%로 취업은 여전히 대기업에 크게 의존한 상황임

– 게다가 거의 90%를 차지하는 영세 공상업이 중국 공상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2%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이 44%로 나타남. 그에 비해 대기업은 1.7%에 불과한 사업체 수로 30%의 생산액을 차지함

– 또한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투자자를 모색하거나 외부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경로가 협소해 70% 이상이 개인 저축이나 친척,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 창업하고, 약 20%의 창업자들만이 외부투자를 통해 창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많은 젊은 세대들이 창업의 꿈을 품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기 힘들고 벤처투자는 더더욱 어려워 창업의 꿈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음

– 중국은 시장기회가 많고 구매력도 방대하지만 창업 성공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창업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어려움은 나날이 커지고 있음

–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의 창업 역량은 여전히 약한 편이며,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은 금융시장 미숙, 벤처투자 부족, 세수 등 정책적 지원 부족 등 문제로 창업 환경이 비교적 뒤쳐진 편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중국 정부는 최근 사회자본투자와 소기업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2013년 기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기금사업 신청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중앙정부가 소기업에 대한 지원강도를 더욱 높임. 재정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발전 지원 예산이 2008년 49.9억 위안에서 2013년에 약 150억 위안으로 확대됨

– 그러나 금융시장, 벤처 투자 시장에 대한 개선없이 이러한 정부의 단일한 재정적 지원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창업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함

– 한편, 칭화대학 중국창업연구센터는 올해 초 ‘중국 창업 10년의 변천’에 대해 4개의 변화와 4개의 특징을 소개함

– 4개의 변화는 중국의 창업 동기가 생존형에서 기회형으로 바뀌었고, 중국 지역별 창업활동의 절대적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중국 창업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창업기회가 증가한 것임

– 4개의 특징은 제품과 공학 혁신 방면에서 중국 창업기업이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취업 촉진 측면에서는 중국 창업기업의 향후 5년간 일자리 창출 능력이 다른 국가보다 비교적 높으며, 창업기업의 시장이 주로 중국 국내에 집중되어 있어 국제화 수준이 낮고, 고학력 창업자의 창업 효과가 비교적 크다는 점임

– 중국의 창업 활동이 이미 기회형 창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 활동의 기술 수준이 여전히 낮고 노동력과 염가 코스트에 의존하는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비록 일정한 일자리를 창출하긴 하지만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수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

\*출처: 创业邦(www.cyzone.cn), 百度(www.baidu.com), 中国新闻网(www.chinanews.com), 科技日报(www.stdaily.com), 中外管理(www.zwgl.com.cn), 第一财经日报